

목격자들
Interview



국내 최초 '소설 조선왕조실록'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김탁환

지금
여기를 비추는 거대하고
매혹적인 거울

소설 조선왕조실록

소설 조선왕조실록이란?

시대 순이 아닌 문제의식과 스타일 중심으로 다채롭게 재구성하는
조선 왕조 500년, 60권 완간을 목표로 달리는 역사 소설 대장정.

※이 기사는 「목격자들」 출간 후 민음사에서 진행된 김탁환 작가와 김준태 역사학자의 대담을 재구성 한 것 입니다.

비할 데가 있다면 알렉산드르 뒤마 정도가 아닐까. 올리는 공연마다 대성황을 이룬 인기 극작가로, 데뷔한 이후 소설, 그중에서도 역사 소설에 빠져든 그는 무엇보다 방대한 양의 저작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영화 「조선명탐정」, 「가비」를 비롯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영화와 드라마의 원작자로서 또 역사 소설 연애 소설 과학 소설 에세이 서평집…… 종횡무진하며 다작의 한계를 갱신하고 있는 쓰기 중독자로서, 사실 김탁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비교는 불필요할지 모른다. 이토록 다양하게 많은 것을 쓰는 작가가 조선이라는 주제로 무려 60권에 달하는 기나긴 장정을 시작했다. 왜일까.

Q 이런 거대한 작업을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조선은 제게 오래된 미래입니다. 21세기 초반을 살다 간 김탁환이라는 소설가가 21세기 초반에 일어난 문제들을 '조선'이라는 왕조를 거울로 삼아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소설 조선왕조실록'인 겁니다. 거대한 거울일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소재와 장르로 조선 역사에 접근하고 싶고, 독자들도 거기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합니다.

Q 왜 하필 '조선'인가요?

A 제가 하는 작업이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다룬 소설에서 그 세계를 풍부하게 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고려나 신라는 아무래도 이 기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설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자료 없이 판타지를 동원한 소설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 인물과 사건을 구축하는 작업을 '소설 조선왕조실록' 시리즈에서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시간적 거리를 둘 땐 조선을 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정도전 이야기(『혁명』)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책의 부제는 '광활한 인간 정도전'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광활한' 인물을 고르려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가슴에 품었던 '개인', 그런 광활한 인간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소설을 통해 다루고 싶었습니다.

Q 정도전이 조선을 설계한 것은 맞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방원에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의 혁명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정도전의 혁명 개념은 중단된 것일까요?

A 고려 말은 왕이나 고승의 주관에 의해 나랏일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런 몇몇 사람들의 주관이 아니라 체계 자체를 새롭게 구축하여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이 망하는 그 날까지, 그가 설계한 시스템이 이어졌지요. 다만 좌절된 부분은 '재상 중심'의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겠죠.

Q 일인칭 서술, 삼인칭 역사적 서술, 편지와 시를 인용하시기도 했지요. 이런 다양한 서술 방식을 섞으신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A 역사 소설을 쓰기 위해선 개인의 역사 기록과 국가적 차원의 정사를 끝없이 비교해서 읽어 나가야만 합니다. 20년 넘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기록과 국가의 통사가 서로 만나 어우러지기도 하고 때론 한 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반박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정도전의 인생에서는 정몽주의 죽음이 무척 큰 사건이었을 텐데, 『고려사』나 정도전의 문집에는 정도전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지점에서 아찔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소설가인 나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로 풀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18일 동안 개성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편년체적인 기술과 영주에서 머무르고 있는 정도전의 시골 생활에 대한 독백을 교차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1342년에서 1398년까지 14세기를 살다 간 정도전의 마음을 작품에 녹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정도전이 예전에 귀양을 가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남긴 시와 문을 참고했고, 또 정도전과 정몽주 사이에 오간 글들, 정도전과 이성계 사이에 전해오는 일화들을 소설 속에 녹이고자 했습니다.

Q 이성계는 왕이 되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걸까요?

A 조선을 세우자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에 이성계는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과연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단지 겸양의 포즈였는지는 소설로 따로 다룰 만하지요. 그런데 왕이 되고서도 정도전이나 신하들에게 일선 업무들을 많이 맡깁니다. 이것은 정사를 두루 강력하게 주도한 태종이나 세종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확실한 건 조선의 긴 역사에서 태조 이성계와 같은 왕은 그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창업 군주들의 스타일을 여러 나라에서 뽑아 비교하며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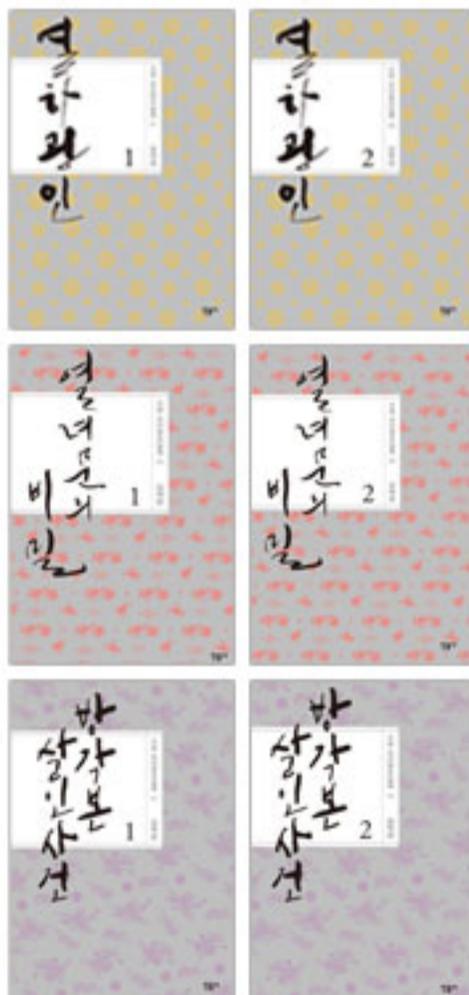
“
인간은 얼마나 절망해야 혁명을
꿈꾸게 되는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닌 절망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
”

Q 정도전과 그의 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 정도전을 쓰면서 '인간은 얼마나 절망해야 혁명을 꿈꾸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작품에서 혁명보다 절망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의 절망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망을 줄이려는 노력 또한 적지 않고요. 그런데 이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서 한 국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게를 지니게 되면, 그 순간 특별한 결단이 찾아드는 것이겠지요. 정도전이 살다 간 고려 말은 바로 그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2015년 지금은 어떨까요? 우선은 그 절망을 정직하게 절망으로 인정하고, 그 무게를 품어 안으려는 노력과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가끔 그런 상상을 해 보곤 합니다. 2015년 지금 광활한 인간 정도전이 대한민국을 본다면, 무엇부터 고치려고 할까 하는.

Q '소설 조선왕조실록'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A 감히 욕심을 내자면, 독자들이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들을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삶과 핵심 문제들을 독자들의 현재 삶 속에서 비교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설책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작가의 영혼과 독자의 영혼이 만나는 자리이며, 거기서 서로 영향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이룬다는 '작은 기적'을 굳게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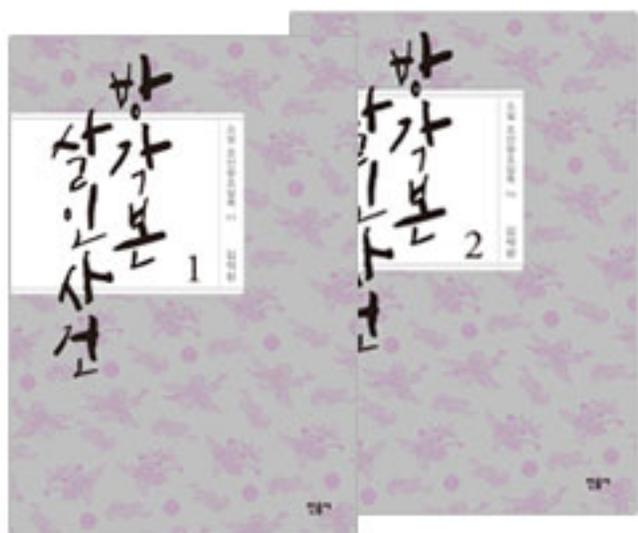
백탑파! 그들은 누구인가?

**백탑파 소설이란? 서울 탐동의 백탑(원각사지심층 석탑)
근처를 무대로 노닐던 실학자들의 일파,
일명 '백탑파'를 주인공으로 삼아 구상한 추리 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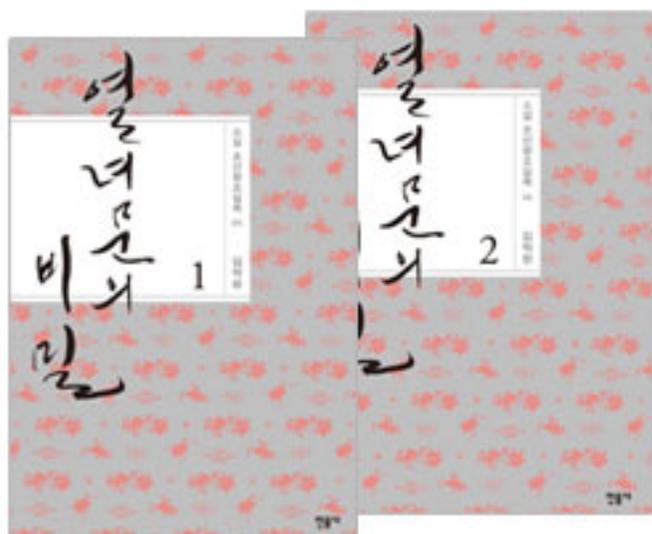
백탑파는 참 독특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재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최절정 고수들인데, 또한 어울려 술 마시고 글 짓고 그림 그리고 음악을 즐긴 '우정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취향도 제각각 달랐지만, 그 차이를 기꺼이 인정했지요. 백탑파는 세상 만물에 차등을 두지 않고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그 대상을 관찰하여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탐정처럼 산 겁니다.





방각본 살인사건 1, 2

이명방은 약관의 나이에 의금부 도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엘리트로, 장안을 어지럽힌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한다. 현장에 놓여 있던 소설책에서 단서를 잡아 당대 인기 최고의 매설가(소설가) 청운몽을 붙잡아 능지처참하지만, 백담 서생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 청운몽이 범인이 아니라는 지적을 당한다. 아니나다를까 살인은 계속되고, 서얼 출신인 불우한 천재 김진의 도움을 받아 또다시 범인을 추적하는 그의 앞에는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여려문의 비밀 1, 2

이토록 치열하게 생의 문제에 마주했던 여인이 정말로 슬픔에 빠져 자살한 것일까? 의혹은 마침내 파국의 결말을 맞고, 너무나 앞서 갔기에 시대의 절대 윤리였던 '공맹지도'를 가감히 뿌리쳐 버린 여인의 비참한 죽음 앞에 탐정들은 비탄을 삼킨다.



열하량인 1, 2

조선 후기 정치사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 문체 반정을 배경으로, 당시 최대 베스트셀러였으나 정조에 의해 금서로 묶인 '열하일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쇄 살인의 비밀을 파헤친다.



“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

Q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홍대용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철학과 사상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키려면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했을 텐데요. 굳이 왜 이런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요?

A 제가 백탑파 시리즈를 쓰지 않았던 8년 동안에도 영·정조 시대의 이야기가 빈번히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탑파를 이제 완전히 안다고 말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담헌 선생님을 중심에 두고 그 시대의 예술과 과학 그리고 사회사상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소설 쪽에서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백탑파를 연암 일파로 통칭하기도 했지만, 더 정확히 명명한다면 연암·담헌 일파로 부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열녀문의 비밀』에서 이덕무 선생님, 『열하광인』에서 연암 선생님도 중요 인물로 다루었지만 직접 추리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담헌 선생님은 그 자신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에선 김진을 도와 추리를 벌여 나가지요.

Q 『목격자들』에서는 사건 해결에 대한 소망보다 절망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A 이 작품은 범인 체포에 중점을 두는 추리 소설이라는 면모와 함께,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따지는 범죄 소설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예리하게 추리를 하고 범인을 잡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설가는 왜 계속 소설을 써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열하광인』을 마칠 즈음에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비극으로 승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고통을 가감 없이 그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 고통을 고통으로만 두지 말고, 또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흐르는 세월에 맡겨 잊으려 들지 말고, 이 고통이 내 삶에 무엇인가 그 의미를 따져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탐정 김진의 인생을 통해 보여 주고 싶었지요.

Q 『목격자들』을 보면 다른 작품들보다 직접적으로 현재의 사건,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A 사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한 동안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 분량의 이야기를 만들며 20여년을 살았는데, 그때 정말 한 문장도 나오지를 앓더군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쓰기를 포기하고 1년이면 1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집필을 멈추는 겁니다.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과연 작년 봄의 사건을 어찌 품에 안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지요. 저는 그들의 고민을 존중합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겁니다. 지금 내게 밀려오는 감정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모두 짊어진 다음 그것을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죠. 김창완 선생님의 <노란 풍선>이라는 노래, 박재동 화백이 신문에 연재하는 세월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예술가들이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불행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조운선 침몰이라는 모티브는 어떻게 얻게 되신 겁니까?

A 저는 장편 작가이고 또 시대물을 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그와 같은 해양 재난 사건을 긴 이야기 속에서 시간적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낱알이 밝히고, 또 희생자들의 존엄을 회복하며, 죄를 지은 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과정을 그려 보고 싶었지요. 그때 두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하나는 조선 시대 내내 일어난 조운선 침몰 사건들이었고, 또 하나는 40대에 네 편의 장편을 쓰기 위해 잠시 헤어졌던 조선 명탐정 김진이었습니니다.

